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34호 【루계 제25012호】 주체104(2015)년 8월 22일 (토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사 설

승리의 신심드높이 원쑤격멸의 보복성전에 떨쳐나서자

끊임없이 감행되고있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정치군사적도발은 더이상 참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적들의 대북심리전과 지난 8월 20일에 감행된 무모한 군사적도발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끓어오르는 복수심과 멸적의 의지를 총폭발시키고있다.

적들의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도높은 징벌로, 침략전쟁에는 무자비한 보복성전으로 대답하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질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백두의 기상과 담력으로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원쑤격멸의 성전에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선군조선의 무적필승의 본때를 남김없이 보여주어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적들의 광기어린 침략책동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 할것입니다.》

백두의 천출명장을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 승리는 백두산대국의 빛나는 전통이고 존엄이며 영웅적기상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성된 위험천만한 정세에 대처하여 긴급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서 21일 17시부터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불의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보도는 천만군민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고있다. 천하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이 서슬푸른 총검을 억세게 틀어쥐고 만단의 결전태세를 갖추었다. 온 나라의 거리와 일터, 학교들에서 원쑤격멸의 함성이 높이 울려나오고 청년학생들과 제대군인들이 조선인민군 입대와 복대를 열렬히 탄원하고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산절세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승리에 대한 신심에 넘쳐있다. 적들의 그 어떤 무분별한 도발도 단호히 짓부시며 파감한 보복성전으로 침략의 무리들을 최후멸망의 무덤속에 몰아넣으려는것이 천만군민의 억척같은 신념이다.

우리의 보복성전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한평생이 어려있는 혁명의 전취물들을 굳건히 지키기 위한 결사전이다.

최근에 로골적으로 감행되고있는 적들의 침략전쟁행위는 우리 인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 군대가 목숨으로 지켜가는 우리 사상과 제도를 허물고 우리 정권과 삶의 모든 령역을 찬탈하기 위한 악랄한 정치군사적도발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공화국의 귀중한 모든것은 목숨바쳐 지켜야 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유산이다. 오늘 활화산처럼 폭발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원쑤격멸의 의지는 불타는 애국충정에 근본바탕을 두고있다.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의 정권과 삶의 모든 령역은 신성불가침이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따라 피와 땀을 바쳐 일떠세우고 굳건히 수호해온 우리 혁명의 전취물들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의 결정체들을 0.001mm라도 침해하고 건드리는 원쑤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가 없다. 오늘의 보복성전을 수령결사옹위전으로 간주하고 적들의 아성을 불바다로 만들려는 천만군민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다.

우리의 보복성전은 빈말을 모르는 백두산총대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할 전면적 반공격전이다.

오늘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불타는 적개심과 원쑤격멸의 의지는 천백배로 치솟고있다. 감히 우리의 민경초소들에 포사격을 감행한 적들의 군사적도발행위는 백두의 기상과 무적의 용맹을 지닌 우리 인민군대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분별없는 망동이며 어리석은 도전이다. 노래를 불러도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는 노래를 불러왔고 꿈을 꾸어도 미제의 가슴팍에 서슬푸른 총창을 박는 복수의 꿈을 꾸었으며 고향에 보내는 편지를 써도 땅크의 무한궤도로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깔아뭉개려는 멸적의 글발을 새겨온 일당백용사들이 바로 우리의 인민군군인들이다.

남조선괴뢰군부호전광들은 저들의 무모한 도발광기로 하여 백두산훈련열풍의 불길속에서 용암처럼 끓여온 인민군대의 적개심의 분화구를 터쳐놓았다는것을 뼈저리게 느낄것이다. 백두산혁명강군은 절대로 빈말을 하지 않으며 원쑤들에게 자비를 모른다. 백승의 전략전술과 대담무쌍한 공격방식, 완벽한 실전능력을 소유한 현대전의 능수, 진짜배기싸움군으로 억세게 준비된 우리 인민군대는 한다면 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우리의 보복성전은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인 미제와 총결산하기 위한 전민항전이다.

지금 미제는 남조선괴뢰군부불한당들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대규모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감행하고있다. 괴뢰군부깡패들의 대북심리전과 무모한 군사적망동을 배후조종하는 악의 근원은 미제침략자들이다. 우리에 대한 뿌리깊은 적대와 불신의 총체인 미국의 대조선정책의 최종목표는 우리의 《제도전복》이며 신성한 령토강점이다.

미제에 대한 복수심의 발원점인 신천땅은 지금 3만 5 000여명의 애국자들과 인민들이 흘린 피의 지층을 안고 분노의 치를 떨고있다. 신천의 백둘어린이들과 사백어머니들이, 100여년전부터 미제의 피묻은 발자욱이 찍혀진 이 땅의 산천초목과 적들에게 학살당한 무고한 인민들의 령혼이 멸적의 복수전, 원쑤격멸의 전민항전을 부르고있다. 피는 피로써 갚아야 하며 승냥이는 반드시 때려잡아야 한다. 마치와 낫, 붓과 함께 더욱 억세게 틀어쥔 우리 인민의 총대는 대미결산의지로 만장약되여있다. 우리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적들이 이 땅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사생결단의 전민항전으로 철천지원쑤들을 죽탕쳐버리고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할것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며 원쑤격멸의 보복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영웅조선의 승리의 전통을 빛내여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더욱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선군조선의 존엄과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치이시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고 우리 조국을 그 어떤 원쑤도 감히 범접 못하는 백두산대국으로 만방에 빛을 뿌리게 하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모든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더 높이 들고 수령결사옹위의 육탄용사로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주체의 최고성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인 금수산태양궁전을 결사보위하여야 한다.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인민군장병들은 미제와 온갖 원쑤들이 백두산혁명강군의 진짜불맛, 전쟁맛을 몸서리치게 느끼게 하여야 한다.

우리의 총대는 불을 즐기는자들에게는 무자비한 복수의 서리발총대이며 일단 발사되면 적들의 본거지를 순간에 불마당질해버리는 무진막강한 백두산총대이다.

인민군장병들은 혁명의 전구 백두산에서 실감하고 뼈속깊이 새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총폭발시켜 원쑤들을 전률케 하여야 한다. 백두산훈련열풍속에서 천백배로 다지고다져온 백전백승의 김일성-김정일군사전략전술과 영웅적전투정신, 완벽한 실전능력을 오늘의 보복성전에서 최대로 발휘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공격명령만 내리시면 무모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한 적들의 머리우에 무자비한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으며 원쑤들을 끝까지 격멸소탕하여야 한다.

로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원들은 적들과의 싸움에서 불타는 증오와 적개심을 활화산처럼 분출시켜 우리 민간무력의 전투적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한다.

오늘의 전민항전에서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떨쳐야 한다.

적들의 무분별한 책동으로 하여 위기일발의 폭발국면에 이른 현정세는 수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친 우리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백방으로 다질것을 요구하고있다. 결전의 시각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선군의 불길속에서 비상히 강화된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최대로 발휘해야 할 때이다.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불의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에 접한 우리의 영용한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지금 최대의 격동상태를 유지하고있다. 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한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전민항전에서 기어이 승리를 안아오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이다.

우리는 군대가 판가리결사전에 나서면 인민들도 결사의 각오로 떨쳐나서고 포연탄우도 서로 막아주며 피와 살도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군민대단결의 자랑찬 력사와 전통을 꿋꿋이 이어나가야 한다.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실현한 선군조선의 위용을 힘있게 떨치며 원군원민의 기풍이 온 나라에 쫙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필승의 기상으로 대교조전군을 더욱 기세차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래일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오늘밤 12시까지는 사회주의건설을 순간도 중단없이 밀고나가는것이 우리의 투쟁방식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총대, 계급의 총창을 억세게 벼리며 대교조격전장마다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전화의 나날 맨손으로 피대를 돌리며 전시생산을 보장한 그 정신, 적들의 맹폭격속에서도 식량증산과 전시수송, 전선원호에 모든것을 다 바친 1950년대 전승세대들의 불굴의 그 투지로 파감한 생산돌격전을 벌려나가야 한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당조직들의 역할을 비상히 높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침략적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피는 피로써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투철한 반제반미계급의식과 주적관을 깊이 심어주는데 당사상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주체적인 전쟁관점과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전체 인민을 튼튼히 무장시키며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더욱 철저히 갖추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청년들이 최후결전의 시각이 온다면 원쑤격멸의 전초선으로 달려나가 격전장마다에서 우리의 람홍색공화국기가 펄펄 휘날리게 하여야 한다.

희세의 군사전략가이시며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가 있고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최강의 무기인 일심단결이 있으며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이 있기에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 철천지원쑤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무모한 도발광기를 단호히 짓부시고 선군조선의 영웅적기상과 불패의 위용을 힘있게 떨쳐나가자.

남조선괴뢰군부호전광들의 분별없는 도발광기를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리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에 접한 각계의 반향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최후승리를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끊임없는 반공화국정치군사적도발책동은 대북심리전방송을 재개하고 대북삐라살포작전을 감행하는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신성한 우리 공화국의 령토에 수십발의 포탄을 란사하는 군사적망동에까지 이르렀다.

원쑤들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은 온 나라를 복수의 불도가니로 만들었다.

오늘의 위험천만한 정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백승의 제일무기인 우리의 일심단결을 더욱 철통같이 다져 그 강위력한 힘으로 적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뭉개버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심단결은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원자탄보다도 위력한 필승의 무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당조직들은 오늘의 긴장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일심단결을 튼튼히 다지기 위한데 중심을 두고 당사업을 더욱 힘있게 전개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로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온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적들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고 최후승리를 이룩하도록 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겠다.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이 차넘치고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도록 당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겠다.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앞세우면서 전당의 모든 당일군들이 야전형의 일군이 되여 최전연지대의 제1선참호에 선 심정으로 전투현장에서 작전도 지휘도 정치사업도 화선식으로 해나가도록 하겠다.

우리 당중앙위원회 일군들부터가 야전형의 일군이 되여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최전연지대의 당조직들로 달려나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관철을 위해 한결같이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들과 어깨를 겯고 그들을 최후승리에로 적극 불러일으키겠다.

우리의 일심단결을 더욱 억세게 다져나가는 길에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가 있다.

우리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정신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원수님만 굳게 믿고 따르는 원수님의 참된 동지, 전우로, 총대중시사상으로 만장약된 선군혁명투사들로 억세게 키움으로써 우리의 일심단결을 더욱 철통같이 다져나가겠다.

그리하여 이 세상 그 무엇에도 견줄수 없는 가장 힘있는 무기인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적들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고야 말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

결전의 제일선에 우리가 서겠다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는 준엄한 정세에 대처하여 긴급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 접한 온 황해북도땅에 분노와 복수의 열풍이 무섭게 몰아치고있다.

우리 인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 군대가 목숨으로 지켜가는 우리 사상과 제도를 허물고 우리 정권과 삶의 모든 령역을 찬탈하려고 최후의 지랄발광을 다하고있는 놈들을 뼈도 추리지 못하게 할 멸적의 기개가 온 도에 꽉 차넘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이것이 우리의 원칙적립장이며 확고한 의지입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1일 17시부터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불의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우리의 참을성, 인내성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는 격으로 날뛰는 놈들에게 선군조선의 불벼락, 죽음의 철추를 내릴 때는 드디여 왔다.

우리는 오늘의 준엄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체질화한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억세게 키우기 위한 당정치사업을 더욱 공세적으로 벌려나가겠다. 누구나가 최악의 시련과 역경속에서도 오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과 당중앙위원회를 결사보위하도록 하겠다.

각급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조직들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명령일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을 확립하고 모든 단위들이 그 언제든지 전시로 이전할수 있게 하며 도안의 모든 인적, 물적잠재력을 총동원하여 만단의 준비를 갖추겠다.

전선지대에 위치하고있을뿐아니라 수도의 관문인 도의 특성에 맞게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군인정신, 총폭탄정신을 만장약하고 그 어느때보다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사업하고 생활하도록 하며 적들이 감히 도전해나선다면 마지막 한놈까지 무주고혼의 신세를 면치 못하게 하겠다.

그리하여 원쑤격멸의 제일선에 우리 도가 서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박태덕

800만 총폭탄은 명령만 기다린다

조성된 위험천만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가 긴급소집된 소식에 접한 우리 800만 청소년들의 심장이 복수의 일념으로 펄펄 끓고있다.

적들이 8월초부터 전 전선에서 대북심리전방송을 재개하고 대북삐라살포행위를 감행하다 못해 지난 20일 오후에는 또다시 있지도 않는 《북포탄발사》 사건을 조작해내고 우리의 신성한 령토를 향하여 수십발의 포탄을 란사하는 무모한 군사적망동을 저질렀으니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참을수 있단 말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서 21일 17시부터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불의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신것은 우리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며 침략의 무리들이 다시는 이 땅에서 살아숨쉬지 못하게 씨도 없이 죽탕쳐버리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 조치로 된다고 생각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의 남녀청년들은 적들이 무모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마치와 낫과 붓을 총대로 바꿔들고 1950년대의 조국방위자들처럼 용약 떨쳐나 전민항쟁으로 침략자들을 단매에 격멸소탕하고 자기의 거리와 마을, 학교를 굳건히 지켜내야 합니다.》

선군혁명의 척후대, 익측부대인 우리 선군청년전위대오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다지고다져온 800만 총폭탄을 총폭발시켜 원쑤들을 지구상에서 영영 없애버리고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 말것이다.

우리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청년들을 수령결사옹위정신, 1950년대 조국결사수호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이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청춘을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오늘의 리수복, 강호영, 조군실, 안영애가 되도록 하겠다.

특히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전선지대안의 청년동맹조직들에서 모든 사업을 준전시체제로 전환시켜 진행하며 반타격, 반공격작전에 진입하는 인민군군인들과 한전호에서 싸워나가도록 하겠다.

지금 우리 수백만 청년들은 결사전에 용약 떨쳐나서 한목숨바칠 각오로 충만되여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만장약된 선군청년전위들이 있는 한 최후승리도 확정적이다.

원쑤격멸의 맨 앞장에 우리 800만 총폭탄이 서자!

이것이 바로 결사항전태세를 갖춘 우리 청소년들의 한결같은 심장의 분출이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전용남

적들의 무모한 도발광기를 짓부셔버릴 멸적의 의지로 가슴끓이는 618건설돌격대원들 본사기자 리총성 찍음

군자리로동계급의 투쟁본때로

남조선괴뢰군부깡패들의 무모한 군사적망동에 치솟는 격분을 금할수 없다. 이놈들이 감히 어디에다 대고 수십발의 포탄을 란사하는가.

있지도 않는 《지뢰폭발》사건과 《북포탄발사》사건을 련이어 조작해내며 정세를 위험천만한 지경에로 몰아가고있는 놈들의 책동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허물고 우리 정권과 삶의 모든 령역을 찬탈하려는 악랄한 정치군사적도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반동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 전쟁위험은 날로 더욱 커가고있습니다.》

조선로동계급의 무쇠마치가 무섭게 떨고있다. 놈들은 우리를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 우리에게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걸음걸음 짓부셔버리며 승리만을 이룩해온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다. 우리 공화국의 전진을 막아보려고 제아무리 미쳐날뛰였어도 거듭되는 참패만을 당해온것이 적들의 수치스러운 과거사이다.

조성된 위험천만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가 긴급소집된 소식에 접한 우리 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마치를 틀어쥐고 놈들과 최후결사전을 벌릴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었다. 모두의 심장마다에서는 1950년대 군자리로동계급의 투쟁정신과 기질, 본때가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패당의 머리우에 불벼락을 들씌우는 폭탄을 만드는 심정으로 발전설비들을 생산하여 조선속도창조열풍이 드세차게 휘몰아치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과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 보내준 우리들이다.

오늘날 우리가 지켜선 일터는 1950년대 용사들이 지켜섰던 나의 전호, 나의 고지이며 적들의 폭격속에서도 증산의 동음을 멈추지 않은 전화의 로동계급이 지켜섰던 나의 공장이다.

우리는 《내가 지켜선 조국》의 노래를 전시가요처럼 높이 부르며 대상설비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겠다. 적들과 총구를 맞대고있는 최전선에 선 심정으로 증산의 동음을 원쑤격멸의 동음으로 이어가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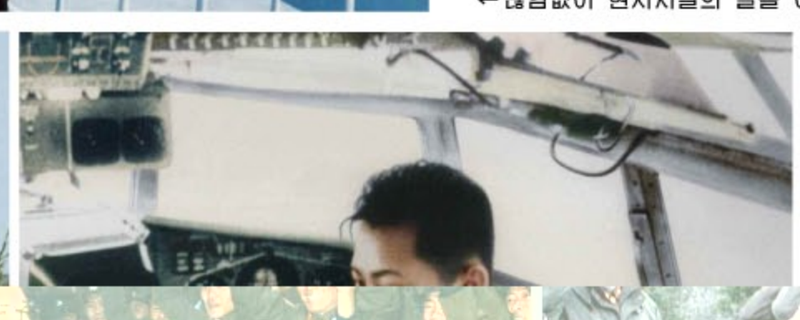
우리 대안의 로동계급에게는 혁명과 건설의 년대기마다에서 당과 수령의 구상과 의도를 충정으로 받들어온 빛나는 전통이 있다.

우리는 제 죽을줄 모르고 불을 찾아 뛰여드는 부나비마냥 가소롭게 놀아대는 놈들에게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로동계급의 본때를 다시한번 보여줌으로써 10월의 대축전장에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들어서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지배인 양승호

위대한 선군혁명령도사에 빛나는 불멸의 업적 영원히 잊지 않으리

↑최전연군인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84(1995)년 9월
←끊임없이 현지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89(2000)년 11월



소를 찾아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84(1995)년 1월

적들과 심예하게 대결하고있는 판문점초소를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85(1996)년 1월

지혜산혁명사적표식비앞에서 어버이수령님께 가장 경건한 심정으로 경의를 드리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86(1997)년 4월

다박솔초

에서 전투임무를 수행하고있는 인민군병사들 만나주시는 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85(1996)년 8월

인민군부대의 양묘장에 들리시여 나무심기정형을 료해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93(2004)년 3월

조선인민군 근위서울류경수제105방구사단관하 구분대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99(2010)년 1월

절령마루

위대한 령도

최후승리는 백두산대국의것이다

—신성한 우리 령토에 감히 선불질을 한 특대형도발자들, 히스테리들에게 무자비한 백두산총대세례를 안기자!

적들의 로골적인 정치군사적도발광기에 대처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 긴급소집보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보도 소식은 지금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을 침략자들을 철저히 격멸소탕할 투지로 부글부글 끓게 하고있다.

지금껏 잠재한 무진막강한 선군의 보복수단들을 총발동하여 최후승리를 안아올 드높은 기개로 천만의 철의 대오가 용암마냥 이글거린다.

우리에게는 천하제일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신다.

핵무기, 신형반함선로케트, 전략잠수함탄도탄…

침략의 무리가 그 어디에 도사리고있건 모조리 죽탕쳐버릴 그 어떤 무기도 우리에게는 다 있다.

강철의 선군령장이신 우리 장군님께서 위대한 한평생과 맞바꾸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께서 빨찌산공격정신으로 마련하신 더없이 고귀한 애국유산과 군력이 있는 한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 *

침략의 무리가 별의별 추악한짓을 다해도 끄떡없이 노도의 기상으로 폭풍치며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눈부신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 특유의 비범한 천리혜안의 예지가 안아온 경이적인 사변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혁명실천이였으며 장군님의 정치리념, 정치방식의 총체인 선군, 얼마전 머나먼 단마르크에서 진행된 한 행사장에서 울린 격조높은 칭송의 목소리를 되새겨보자.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이 날로 로골화되는 오늘의 세계에서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백승의 기치이다.》

하물며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의 체험자, 목격자들인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선군에 대한 추억은 얼마나 강렬한것인가.

우리 잠시 지난 세기 60년대 기슭에 서보자.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멸망으로부터의 출로를 군비경쟁과 긴장상태의 격화에서 찾으려고 사회주의나라들을 상대로 핵전쟁, 국부전쟁, 특수전쟁에 열을 올리는 한편 세계도처에서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하며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하던 때였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령도의 자욱을 새기신것은 선군혁명위업의 계승과 선군령도의 새 출발을 선언한 력사적사변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혁명은 력사의 온갖 풍파를 뚫고 승승장구하여올수 있었으며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초강도강행군길이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인류가 알지 못하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습니다.》

우리 조국의 영웅시대가 어떻게 장엄히 펼쳐졌는가를, 그 전대미문의 승리가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웅변으로 전하는 격동의 50여성상,

우리 장군님의 선군길을 잊으면 우리 어찌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라고 말할수 있으랴.

우리 장군님의 선군길을 잊으면 이 땅도 없고 휘황찬란한 미래도 없다. 이는 피눈물의 그 나날 천만의 철의 대오가 뼈에 새긴 진리가 아니던가.

장장 50여년,

선군을 필승의 전략, 만능의 무기로 틀어쥐고 빨찌산정신과 투지로 결사전을 벌리신 비범한 선군령장의 백절불굴의 신념으로 빛난 불멸의 년대들이다.

세상사람들은 지금도 우리 나라 해상에서 《경호함 56》호사건이 발생하였던 때를 잊지 않을것이다.

무장함선사건을 계기로 적들은 서해안일대에서 련일 소란을 피우며 화약내를 풍기였다. 정세가 어찌나 복잡하고 소란스러웠으면 서방의 군사평론가들까지도 조선서해에서 불원간에 큰 군사사건이 발생할것이라고 평하였겠는가.

바로 이러한 때 인민군대의 전투준비를 완성할데 대한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동해안을 철벽의 요새로 더욱 튼튼히 다지도록 하시였다. 적들이 서해안에서 불장난에 열을 올리고있을 때 그이께서 어찌하여 비교적 잠잠한 동해안에 그토록 깊은 관심을 두시였는지 그 까닭을 아는 사람은 그때까지 누구도 없었다.

그 이듬해 1월 조선중앙통신사의 긴급보도를 듣고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그것을 깨달았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에 대한 보도였다. 그이의 군사적예지란 이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비범한것이였다.

선행자들의 무능을 비웃으며 취임한지 반년도 안되여 닉슨이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을 조작하였을 때에도 우리에게 도발을 거는 제국주의자들에게는 무자비한 징벌을 가해야 한다고 선언하시며 상대가 미처 손쓸 사이도 없이 적들을 군사정전위원회에 끌어내여 호되게 다불렀다세우도록 하신 기묘하고 담대한 지략,

미제가 국제원자력기구를 사촉하여 우리의 군사대상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행하려고 미쳐날뛰는 한편 우리에 대한 집단적인 《제재》와 《압력》을 가하려고 책동할 때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최고사령관명령을 하달하시여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폭탄선언으로 대답하신 천재적인 군사전략가,

매번 참패만 당한 우리와의 대결전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허세를 부리면서 《북조선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사용하면 보복하겠다.》느니, 《그것은 그 나라의 종말을 의미한다.》느니 하는 폭언을 마구 줴칠때 만일 그 누구든 우리를 감히 건드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용단이 파연 어떤것인가를 즉시 실천으로 보여줄것이다라고 엄하게 경고하게 하시여 적들을 혼비백산케 하신 강철의 령장,

세계반동의 피수와 직접 대결한 조선은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만장약하고계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의 정당성을 검증한 격전장이였다.

굴욕과 타협바람이 불던 지난 세기 90년대 중엽 우리 조국에서 더 높이 울린 선군정치의 장엄한 뢰성이 오늘도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의 심장을 쿵쿵 높뛰게 한다.

세계정치구도와 력량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난것을 기화로 우리 조국에서도 사회주의기치가 내리워지게 될것이라며 다사스러운 어용나팔수들이 가시돋힌 랑설을 요란스럽게 퍼뜨리고있던 때였다.

망국노가 되겠는가, 자주적인민이 되겠는가. 오늘 문제는 바로 이렇게 선다!

나는 군대를 가지고 혁명을 끝까지 밀고나가자고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철의 신념과 의지가 그처럼 소란스럽던 랑설을 눌러버리였음은 두말할것도 없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조선의 후손만대의 전략적로선인 선군의 길을 택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주체의 사회주의를 영예롭게 수호하고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신것은 력사의 기적이다.

다박솔초소를 내리시는 길에서부터 우리 장군님의 주소는 혁명의 최전방 전선이였다. 장군님의 한생은 전선행이였다.

위장망을 친 최전방지휘소들, 병사들의 병실들, 바람세찬 고지의 좁은 초소길들…

선군의 산악인 오성산,

오성산과 얼마나 많이도 이어진 불세출의 혁명가, 위대한 인간의 헌신의 장정이였던가.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리시던 나날을 잊지 못하시여 하신 우리 장군님의 뜨거운 회고가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을 친다.

오성산이란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간고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때는 가슴아픈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여지는것만 같습니다. 뜻밖에 수령님을 잃고 가슴터져오는 일들을 겪던 그때를 영원히 잊을수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던 시기에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으로 선군정치를 하였으며 적들의 초소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최전연초소들을 끊임없이 시찰하였습니다!

나는 수령님의 뜻대로 인민군대를 틀어쥐고 선군정치를 하여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지켜냈으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였습니다!

그 나날의 우리 장군님의 가슴뜨거운 교시가 오늘도 우리 천만군민을 울리고있다.

선군혁명령도의 기나긴 세월 야전일과, 야전솜옷과 같은 전설같은 혁명일화를 남기신 희세의 애국령장,

선군혁명이라는 아름드리거목을 자래우는 뿌리가 되시여 자신께서 고생한것만큼 조국이 수호되고 인민이 잘살 날이 앞당겨진다는 숭고한 사명감으로 늘 자신을 채찍질하시며 어느 하루 다리쉼하실새 없이 선군장정의 길에 계신 우리 장군님,

전인미답의 그길에서 김일성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력사에 없는 정치방식을 확립하시였으며 그길에서 먹장구름과도 같은 만가지 화를 날려보내고 희망과 신심이 넘쳐나게 하는 만가지 복을 안아오신 절세의 애국자가 우리 장군님이시다.

우리 장군님 걸으신 선군의 길에서 항일의 7련대의 나팔소리가 온 나라를 진감하였고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맨 앞장에서 결사관철하는 선봉대, 선군혁명위업수행의 전위대오가 철의 진을 치였으며 혁명적군인정신을 체현한 신념의 강자, 일심단결의 무성한 철의 대오가 자라나지 않았던가.

선군으로 닦은 토대우에 든든히 발을 붙이고 세계를 굽어보시면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로의 전면적인 총공세를 선언하신 우리 장군님의 애국의 호소따라 당당한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의 우주돌진이라는 민족사적인 전성기가 펼쳐질수 있게 된것 아니던가.

위대한 선군정치가,

그 불멸할 존칭은 천하를 거느리는 미증유의 힘, 최강의 국력과 천군만마의 거대한 군력의 상징으로 세계에 찬연한 빛을 뿌리였다.

우리 장군님의 억척불변의 선군정치로 하여 제국주의의 강권과 압력이 력사의 시궁창에 처박히고 자주강국의 경이적인 오늘이 있는것 아니던가.

인간도 사회도 새롭게 탄생시킨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선군령도, 선군정치가 있어 조선은 그 어떤 현대적무장장비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낼수 있는 강위력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무슨 용단이나 다 내릴수 있으며 점령 못할 고지란 없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영원한 전사, 제자들이여,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의 결정체,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한평생의 열과 정이 진하게 슴배인 선군정치를 부디 잊지 말자. 그리고 천추만대로 길이 빛내이자.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충직하게 계승하고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시려는것은 력사의 선군절을 언제나 소중히 안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철의 신념이다.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려는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철석같은 의지입니다!

위대한 한평생을 선군에 다 바치신 만고절세의 애국자의 하늘같은 은공을 정녕 잊지 못하시여 시련의 나날 우리 장군님께서 인민에게 하고싶으시였던 심장의 언어를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항상 새기고계시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열화의 일편단심은 산천초목도 삼가 머리숙이게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력사는 우리 장군님의 선군혁명철학을 이 세상 모든 정의우에 우뚝 세우신 위대한 총정의 력사, 천하제일명장의 선군신념과 의지가 매일, 매 시각 과시되는 불멸의 력사이다.

최첨단수준에서 개발된 신형반함선로케트시험발사,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

한계가 없는 선군조선의 막강한 국력이 시위될 때마다 천출명장을 높이 모신 천만의 가슴 얼마나 환희로 높뛰었던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선군혁명의 한길로 폭풍쳐 내달리는 천만의 철의 대오에 최후승리의 신심과 락관이 충만되게 하고 우리를 어째보려고 안달아하는 추악한 무리들의 정수리를 철퇴로 후려갈긴 선군조선의 련속타격,

그것은 우리의 길은 명실공히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선군의 길,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임을 시위하는 일대 선언이며 선군은 곧 승리임을 확증한 장쾌한 뢰성이였다.

남조선괴뢰군부깡패들의 밤낮없는 대북심리전방송, 대규모뻐라살포작전, 신성한 우리의 령토에 대한 무지막지한 포사격…

적들의 책동이 날로 포악해질수록 선군신념과 의지를 백배천배로 가다듬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과 심장의 박동을 함께 하여 천만의 철의 대오가 노도의 기상으로 일떠섰다.

그 맨 앞장에 사상과 신념의 강군, 백두산혁명강군인 영용한 우리 인민군대가 서리발총창을 비껴들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받드는 길에서 우리의 총대는 영원히 당과 그 위업을 굳건히 담보하는 억척의 지지점이다.

목숨은 버려도 혁명의 붉은기, 주체의 당기를 끝까지 지킬 투철한 신념을 만장약한 우리 인민군대는 그 어떤 시련이 닥쳐오고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오직 당과 수령만을 알고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할 하나의 사상, 하나의 각오로 충만된 무적필승의 군대이다.

천만의 대오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신념으로 호흡하고 원수님의 강행군정신을 따를 때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이 성스러운 선군혁명위업의 정의이며 진리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 천만군민은 우리 장군님의 피어린 선군혁명천만리를 천추만대로 길이 전해갈것이며 그길에서 무진막강한 선군의 위력으로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제호전광들, 미제의 사타구니에 불어 날뛰는 역적무리들을 송두리채 쓸어버리고 최후승리의 날을 반드시 안아올것이다.

본사기자 량 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20일 군사분계선일대에서는 남조선괴뢰들이 우리측 지역을 향해 수십발의 포탄을 쏘아대는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가 또다시 발생하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적들은 우리측이 먼저 포탄 1발을 발사하였기때문에 저들이 대응사격을 한것이라고 먼저 떠들고있지만 그것은 전혀 무근거한 거짓이며 날조이다.

이날 우리측에서는 적측에 포탄 한발, 총탄 한발도 먼저 발사한것이 없었으며 지어 오발사고 한건도 없었다.

게다가 우리가 그 어떤 군사적목적을 필요로 했다면 하필 적의 대군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에 진입하여 최고수준의 전쟁태세에 들어간 때에 단 한두발의 포탄으로 불을 걸었겠는가 하는것이다.

남조선괴뢰군이 무모하게 쏘아댄 포탄들이 우리측 지역에 날아와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군대의 수십만 장병들은 다가오는 당창건 70돐을 대축전으로 맞이할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평화적건설에 동원되여있었다.

남조선괴뢰들이 일방적으로 감행한 이번 포격사건은 결코 우발적인것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며 치밀하게 계산된 도발자작극이다.

지금 박근혜패당은 안팎으로 막다른 궁지에 몰려 더는 잔명을 부지하기 힘든 위기에 처해있다.

대내적으로는 반인민적악정으로 반《정부》민심이 날로 강렬해지고있으며 극단적인 반통일책동과 대결소동이 초래한 북남관계의 파탄과 긴장격화의 악순환으로 괴뢰당국이 최악의 수세에 몰리우고있는것이 남조선의 현실태이다.

괴뢰들은 또한 《싸드》배비문제, 박근혜의 해외행각문제 등을 놓고 대국들의 짬에 끼워 달달 볶이우다 못해 당장에라도 두 총알에 맞을 신세에 처해있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군사분계선상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해내여 내외의 시선을 딴데로 돌리고 출로를 찾으려 한것은 력대 남조선집권자들의 상투적수법이였다.

이번 사건 역시 저들은 위기에서 빠져 숨돌릴 틈을 얻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최대로 격화시켜 남의 잔치에는 훼방을 놓기 위한 무분별한 흉계에서 나온 로골적인 도발행위이다.

적들은 먼저 군사분계선상에서 《지뢰폭발》사건을 조작한 다음 그를 구실로 대북심리전방송을 재개하여 우리를 최대로 자극하면서 미국과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등 단계적으로 국제사회로 하여금 우리가 먼저 사격했을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끔 심리적상황을 조성한 후 포사격도발을 감행하고는 그에 대해 우리의 사격에 대한 《대응사격》이였다고 떠들고있다.

그러나 적들은 이번에 단단히 오산하였다.

불을 질러 세상사람들의 눈길을 돌려놓고 딴데로 빠지려다가 오히려 제가 그 불에 아예 타죽게 되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미 평양시간으로 8월 20일 17시 남조선괴뢰국방부에 48시간안으로 대북심리전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심리전수단들을 전면철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군사적행동에로 넘어간다는 최후통첩을 내보내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전 전선에서 일제히 반타격, 반공격에로 이행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공격작전계획을 검토, 비준하였으며 적들에게 최후통첩을 내보낸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결심을 승인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1일 17시부터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불의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최고사령관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전쟁접경에 이른 정세는 더는 되돌릴수 없게 되였다.

우리는 남조선괴뢰들의 포사격자작극의 배후에 진하게 비껴있는 미국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고있으며 사태가 확전에로 이어지는 경우 미제침략군의 사소한 도발적움직임에도 단호히 대처할 만단의 준비가 되여있다.

우리는 수십년간을 자제할대로 자제하여왔다.

지금에 와서 그 누구의 그 어떤 자제타령도 더는 정세관리에 도움을 줄수 없게 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단순한 대응이나 보복이 아니라 우리 인민이 선택한 제도를 목숨으로 지키기 위해 전면전도 불사할 립장이다.

이제 세계는 우리의 자위적조치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 어떻게 확대되고 어떻게 승리적으로 결속되는가를 보게 될것이다.

주체104(2015)년 8월 21일
평 양

선군으로 키워주신 무적의 힘

적들의 엄중한 군사적도발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복수의 피를 끓이고있다.

적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로 하여 백두산총대는 무섭게 뢰성칠 시각만을 기다리고있다.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것이다. 선군으로 백전백승만을 아로새겨온 내 조국의 자랑찬 력사가 그것을 잘 말하여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영원히 승리만을 떨쳐갈것입니다.》

선군은 우리의 생명이다.

이 철의 진리를 천만군민은 천연바위에 정대로 쪼아박듯 자기의 심장마다에 새겨넣지 않았던가.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대한 현지지도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력사의 갈피를 더듬는다.

1960년대의 《푸에블로》호사건과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1970년대의 판문점사건을 비롯하여 이 땅에서 전쟁과 평화가 결정되고 승리와 패배가 좌우되던 력사적인 시기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의 보검으로 승리만을 떨치시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나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기 시작한 첫 시기부터 혁명무력을 강화하는데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왔으며 인민군대에 의거하여 당과 국가건설, 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갔다고, 나의 혁명령도사는 선군혁명령도사라고 말할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참으로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그이의 선군혁명령도가 있어 우리 인민은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하지 않고 승리의 한길만을 걸어오지 않았던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돌파할수 있었던것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펴시였기때문이다.

선군으로 승리하여온 지난날들을 돌이켜보는 일군들의 감회는 컸다.

계속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땅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나의 선군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우리는 가장 혁명적이고 가장 위력한 사회주의정치방식인 선군정치를 만능의 보검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조국의 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것이라고 근엄하신 어조로 마디마디에 력점을 박으며 교시하시였다.

쩌렁쩌렁 울리시는 그이의 교시는 이 땅우에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인민은 보았다. 이 땅에서 선군의 력사가 어떻게 계승되는가를.

백두산대국의 존엄을 지켜 혁명의 총대를 더욱 굳게 틀어잡자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렇다.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또 한분의 선군령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신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일단 명령을 내리신다면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하늘과 땅, 바다초소를 철옹성같이 지키고있는 인민군장병들은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적들이 정신차릴새 없이 무자비한 타격으로 빠다귀도 추리지 못하게 묵사발을 만들어버릴것이다.

본사기자 김철혁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부다뻬슈뜨

마쟈르공화국 대통령

아데르 야노쉬각하

나는 마쟈르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면서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리익과 념원에 맞게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4(2015)년 8월 20일 평 양

부쥼부라

부룬디공화국 대통령

뻬에르 은쿠룬지자각하

나는 당신이 부룬디공화국 대통령으로 재선된데 대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4(2015)년 8월 20일 평 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뻬루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후안 까를로스 까뿌냐이 주조 뻬루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2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여기에는 신홍철 외무성 부상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신념의 맹세 하늘땅에 차넘친다. 본사기자 찍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5돐에 즈음하여

청년학생들의 경축모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5돐에 즈음한 청년학생들의 경축모임이 21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평양고무공장 로동자 김려중,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농장원 김은정,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강성일, 서성구역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신철이 연설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청년들은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선군조선의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5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그날이 있어 백두밀림에서 총대로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성스러운 혁명력사와 전통이 줄기차게 이어지게 되였으며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기가 마련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지난 1990년대 중엽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령활한 지략 선군길을 이어가신 절세위인의 정력적인 령도로 하여 이 땅우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펼쳐지고 후손만대의 행복을 담보하는 만년토대가 마련되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또 한분의 회세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은 빛나게 계승되고있으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은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어버이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위대한 선군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선군혁명의 한길을 끝까지 걸어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모든 청년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영광찬란한 선군혁명실록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결사옹호보위하는 김정은제일결사대, 제일총폭탄으로 준비해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최근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끊임없는 반공화국정치군사적도발로 하여 나라의 정세는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다고 하면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정신에 적극 호응하여 침략자, 도발자들을 일격에 격멸소탕하기 위한 정의의 성전에 떨쳐나 애국의 끓는 피를 바쳐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군대가 강해야 청춘의 행복도 미래도 지켜진다는것을 명심하고 원군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며 우리의 자랑인 군민대단결을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모든 청년동맹일군들과 동맹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 선군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와 관계부문, 청년동맹일군들, 청년학생들이 경축모임에 참가하였다.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5돐경축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이 21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공연무대에는 녀성3중창 《경애하는 그이품에 안긴 이 행복》, 트럼베트2중주와 남성방창 《백두의 말발굽소리》, 녀성2중창과 혼성방창 《선군일리리》, 재담 《청춘의 이름》, 국이야기 《500만의 신념》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력사의 준엄한 시련과 풍파를 헤치시며 우리 혁명을 영광스러운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조국의 강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혼성4중창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혁명일화와 노래 《말하라 선군길아》 등의 종목들에서 관람자들은 다박솔초소와 철령, 오성산과 초도를 비롯한 조국의 천리방선초소들을 찾아 불철주야의 선군장정을 이어가시며 나라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어버이장군님의 눈물겨운 헌신과 로고를 격정속에 되새기였다.

또 한분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항일선렬들이 간직하였던 백두의 넋과 기상을 안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길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갈 청년전위들의 드팀없는 의지를 담은 남성독창 《천리라도 만리라도》, 남성4중창 《가리라 백두산으로》를 비롯한 종목들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찾아주시고 빛내여주신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지켜갈 선군시대 열혈청년들의 기개가 혼성중창 《전선행렬차》, 녀성독창 《내가 지켜선 조국》, 북과 노래 《해안포병의 노래》 등의 종목들에서 세차게 분출되였다.

합창시와 소합창 《조선청년행진곡》,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로 끝난 공연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정신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단 명령만 내리신다면 우리 공화국을 감히 어째보려고 무분별하게 날뛰는 원쑤들을 정의의 총대로 무자비하게 징벌해버릴 500만 청년전위들의 신념과 의지를 뚜렷이 과시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와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청년동맹일군들, 시안의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집회 청진항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5돐에 즈음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집회가 20일 청진항에서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청진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너우에국적선박들인 《하오판 6》호, 《하오판 2》호의 선장, 선원들이 참가한 집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5돐을 맞으며 그이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불면불휴의 선군령도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illegible]신화를 창조하시여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조국과 혁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으로 온몸을 불태우시며 끊임없는 [illegible]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시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인류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고 말하였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위대한 선군정치를 따라배우기 위한 열풍이 더욱 세차게 일어나고있는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로농적위군 대원들 고도의 격동상태에 들어갔다

강원도안의 전선지대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억척불변의 혁명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안고 백두의 눈보라마냥 폭풍처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입니다.》

조성된 위험천만한 정세에 대처하여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에 접한 강원도의 전선지대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천백배의 보복의지를 안고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있다.

지금 도의 전선지대 로농적위군 대원들은 미제와 괴뢰군부미친개무리가 끝끝내 우리의 경고를 잊고 함부로 날뛴다면 쌓이고쌓인 원한을 속시원히 터뜨려 놈들을 씨도 없이 짓뭉개버릴 불타는 적개심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전선지대에 위치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자기 군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며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내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철원, 평강, 김화군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전시상태에 들어간 인민군군인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고향산천을 피로써 사수할 멸적의 의지를 안고 일터마다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평강군기초식품공장을 비롯하여 전선지대 공장, 기업소의 생산현장들에서는 전시가요가 힘있게 울려퍼지고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전선지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전시에 식량증산으로 전선의 승리를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한 1950년대의 농민들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당면한 풀베기전투와 농작물비배관리에 떨쳐나섰다.

동, 인민반을 비롯한 전선지대의 가두인민반원들도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 촌토를 굳건히 지키면서 1950년대의 남강마을녀성들처럼 인민군군인들을 적극 원호하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힘있게 진행하고있다.

지금 전선지대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패당의 무분별한 반공화국정치군사적도발망동에 치솟는 적개심을 금치 못해하면서 조국수호정신과 원쑤격멸의 의지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신천일

원쑤격멸의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있는 평강군의 로농적위군 대원들

전선지대의 모든 단위들 준전시체제로 일제히 전환

더욱 강렬해지는 보복의지

개성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주는 정의이고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는것은 력사의 필연입니다.》

문게연선도시 개성시가 보복의 의지로 끓어번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에 접한 시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감히 신성한 이 땅에 무지막지한 군사적도발을 가해온 남조선군부깡패들을 단숨에 죽탕쳐버릴 열의에 넘쳐있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행복넘친 이 땅에서 기대를 돌리고 곡식을 가꿀 때에도 원한의 분계선너머 남녘땅에서 과연 어느 하루, 한시도 새 전쟁도발에 미쳐날뛰는 미제와 남조선군부깡패들의 총포성이 멎어본적이 없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시의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원쑤격멸의 기상안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진행하고있다.

방송선전차들이 사상공세의 포문을 열고 시내의 곳곳에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을 전하고있다.

개성방직공장과 개성신발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선군조선의 위력을 총폭발시켜 원쑤들의 아성을 송두리채 날려보내고 야말 필승의 기상으로 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개성송도피복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을 단매에 쳐부실 복수의 일념안고 21일 하루계획을 150%로 넘쳐 수행하였다.

평화, 해선협동농장을 비롯하여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풀베기전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김천일

—개성송도피복공장에서—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을

강령군에서

강령군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멸적의 기상이 하늘에 닿고있다.

연평도포격전의 참패를 망각하고 분별없이 놀아대는 미친개무리들에게 선군조선의 진짜불소나기맛을 보여주자는것이 강령군 인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군안의 모든 단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원쑤들을 족치는 심정으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지펴올리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특히 농업근로자들이 싸우는 전선에 총탄을 보내는 심정으로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룡연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전투장마다에 멸적의 기백이 차넘치는 전투속보판들을 기동적으로 전개하고 21일 하루동안에 160%이상의 풀베기실적을 올리였다. 멸적의 기상이 군안의 모든 협동벌마다에 차넘치고있다.

군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군대와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원호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로농적위군 대원들은 원쑤들을 모조리 격멸소탕할 의지로 가슴 불태우며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박철

—개성송도피복공장에서—

—강령군 룡연농장에서—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과일대풍으로 빛내여나가자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서 궐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궐기모임이 21일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서 진행되였다.

인민보안부 일군들, 대동강과수종합농장 종업원들, 조선인민내무군 군인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인민보안부장 최부일동지의 보고에 이어 걸의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농장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농장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처음으로 따들인 수백t의 사과를 알알이 골라 수도시민들에게 보내주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너무 기뻐 찾아왔다고 하시며 과일들을 받아안고 좋아할 인민들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다고,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고, 나라가 흥할 징조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과일대풍을 안아왔다고 문에 넘치는 감사를 주시였으며 과일생산을 늘이는데서 들어쥐고나가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축산과 수산, 과수부문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더욱 풍족하게 하여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해마다 과일대풍을 마련함으로써 농장에 깃들어있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정보당 50t의 과일을 생산할 목표를 내걸고 정보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과학과수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생산성이 높고 맛좋은 과일종자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모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농장의 자연지리적, 기상기후적특성에 맞게 적지적수로 [illegible]에서 과일나무배치를 정[illegible]며 시기별, 공정별에 따르[illegible] 나무비배관리를 과학기술[illegible] 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illegible]

그들은 과수원의 지력[illegible] 없이 높이는것과 함께 [illegible] 축산, 축산과 과수의 고[illegible] 환생산체계를 철저히 세[illegible] 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할[illegible] 말하였다.

과수부문의 기계화비[illegible] 이는데 힘을 넣고 과일생[illegible] 늘어나는데 따라 운반수[illegible] 기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illegible] 우며 과수업의 세계적인[illegible] 향에 맞게 선진기술을 [illegible] 아들일데 대하여 그들은 [illegible]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과[illegible] 세계적인 패권을 쥐려는 [illegible] 야심을 안고 농장을 세계[illegible] 청춘과원, 인민의 과원으[illegible] 훌륭히 전변시킴으로써 [illegible] 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illegible] 시려고 크나큰 로고와 [illegible] 다 바친신 절세위인들의 [illegible] 인민사랑의 력사를 길이 [illegible]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illegible]었다.

전국희토류응용기술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전국희토류응용기술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19일과 20일 원산농업종합대학에서 진행되였다.

국가과학원,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원산농업종합대학을 비롯한 과학, 교육기관들에서 희토류응용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 기술자, 교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우리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최신과학기술에 의거한 희토류자원의 탐사와 선광, 희토류제품의 생산 등 희토류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는데서 거둔 성과와 경험을 반영한 가치있는 론문들이 발표되였다.

《분리효과성이 높은 중희토류원소들의 분리방법》, 《란탄의 전기화학적환원과정》, 《희토류에 의한 새로운 생물활성첨가제생산》, 《화상치료제—희토류화합물》, 《경희토류초산염의 제조》를 비롯한 여러건의 론문들이 경제적효과성과 학술적가치가 큰것으로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발표회에서는 최근 희토류업의 발전추세와 희토류질을 높이고 희토류생산[illegible] 낮추기 위한 과학기술적[illegible]에 대한 강의도 있었다.

우수한 론문을 발표한 [illegible]들에게 증서가 수여되고 [illegible] 시상이 있었다.

발표회는 과학기술분[illegible]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illegible] 대한 당의 뜻을 실력과 실[illegible] 충직하게 받들며 나라의 [illegible] 공업을 하루빨리 발전시키[illegible]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제41차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 페막

제41차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가 페막되였다.

평양시와 평성, 함흥, 사리원시에서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에서 청소년학생들은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종목별전문화체육소조활동을 힘있게 벌려온 나날에 련마한 체육기술과 집단주의정신, 고상한 경기도덕품성을 잘 보여주었다.

대회에서는 고급중학교, 초급중학교, 소학교부문으로 나뉘여 롱구, 배구, 탁구, 태권도, 씨름 등 17개 종목의 경기들이 벌어졌다.

평양시가 종합 1등을 쟁취하였으며 함경남도, 황해남도가 각각 2등과 3등을 하였다.

또한 40명의 선수들이 4.18 최우수선수로 당선되였다.

페막모임이 21일 청년[illegible] 관에서 있었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illegible] 위원장, 김승두 교육위원[illegible] 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illegible] 체육소조 지도교원들, 선[illegible] 평양시내 청소년학생들이 [illegible]에 참가하였다.

페막모임에서는 4.18 [illegible] 선수상 수상자들에게 표[illegible] 컵, 메달 등이 수여되였다.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다음주에 여러 종목의 체육경기들이 진행된다.

23일(일요일) 오전에 청춘거리 경경기관에서는 4.25체육단, 평양체육단, 기관차체육단, 조선체육대학체육단 남, 녀선수들이 참가하는 탄력망기술혁신경기가 있게 된다.

이날 평양체육단에서 기관차체육단과 평양체육단사이의 예술체조검열경기가, 압록강국방체육단에서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 압록강국방체육단 남, 녀선수들이 참가하는 활쏘기대항경기가 벌어지게 된다.

뜻깊은 청년절을 맞으며 시작된 쇄불컵 남자 1급 축구경기가 결속되게 된다.

24일에는 봉화산팀과 장수봉팀과의 경기가, 25일에는 조별련맹전에서 1, 2위를 한 팀들의 대각경기가 있다.

26일에는 5, 6위에 있는 팀들사이, 27일에는 3, 4위에 있는 팀들사이의 직선경기가 각각 있게 된다.

28일에는 3등과 4등을 가르는 경기와 결승경기가 벌어지게 된다.

현재 벌어지는 축구경기는 27일까지 김일성경기장에서, 28일에는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조선중앙통신】

총련의 대표단들이 떠나갔다

조국해방 70돐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하였던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일군대표단, 재일본조선인대표단이 20일과 21일 비행기로 평양[illegible] 갔다.

【조선중[illegible]

새 전쟁도발책동에 환장한 호전광들을 씨종자도 없이 쓸어버리자

심리모략전에 징벌의 철추를 내릴것이다

오늘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도발광기는 더이상 참을수도 허용할수도 없는 엄중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그로 말미암아 나라의 정세는 위기일발의 폭발국면에로 치닫고있다.

조성된 위험천만한 정세에 대처하여 긴급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21일 17시부터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불의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 도발자들에게 무자비한 섬멸적반타격을 안기고야말 의지밑에 고도의 격동태세에 진입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은 적들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뭉개버리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자위적조치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도발과 전쟁책동에도 단호히 대응할것이며 징벌을 가할것입니다.》

남조선괴뢰들의 심리전과 포사격망동은 침략전쟁의 불을 달기 위한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이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일촉즉발의 위기는 남조선괴뢰들의 심리전이 어떤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였는가를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은 지난 4일에 발생한 《지뢰폭발》사건을 구실로 전 전선에서 10일부터 심리전방송을 재개하는 길에 들어섰으며 반공화국삐라살포놀음에 광란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와 총참모부는 남조선괴뢰당국과 군부호전광들에게 심리전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심리전수단들을 전면적으로 철거하며 그에 불응할 경우 즉시 강력한 군사적행동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공개경고와 최후통첩을 련이어 보냈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내리듯이 심리전이 악랄하게 벌어지는 곳에서는 반드시 침략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것은 초보적인 군사상식이다.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 전선에 걸쳐 심리전을 벌려놓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은 지난 20일 또다시 있지도 않는 《북포탄발사》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구실로 우리의 명토에 수십발의 포탄을 란사하는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서슴지 않았다. 결국 8월에 들어서면서 《지뢰폭발》사건을 구실로 감행된 괴뢰들의 심리모략방송재개놀음과 삐라살포작전 등 반공화국도발소동은 계단식으로 확대되면서 오늘과 같은 최악의 국면에까지 이르게 되였다.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를 겨냥한 로골적인 침략전쟁행위이다. 남조선괴뢰들의 심리전책동이 무모한 포사격도발로 이어진 위험천만한 정세도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의 악랄한 정치군사적도발책동은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을 바라는 우리 민족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 내외호전광들의 공공연한 침략전쟁책동에 무자비한 반타격을 가하는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우리의 신성한 권리이며 력사와 민족앞에 지닌 숭고한 의무이다.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과도 같이 귀중히 여기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감히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보려고 미친듯이 덤벼들고있는것을 추호도 허용할수 없다.

남조선괴뢰들의 무모한 도발책동에 대처한 우리의 자위적조치는 지극히 정정당당한 군사적선택이다.

최고사령관 명령은 침략자, 도발자들이 오만무례하게 날뛰면 날뛸수록 그에 초강경으로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리익,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려는 우리 천만군민의 확고부동한 혁명적립장과 멸적의 의지를 반영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아가는 불패의 강국이다. 우리 인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 군대가 목숨으로 지켜가는 우리의 사상과 제도는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고귀한 혁명의 전취물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슬하에서 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가장 긍지높고 존엄높은 인민으로 자라났다. 미제가 지난 세기 50년대에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할 흉심밑에 전쟁을 도발하고 방대한 침략무력을 투입하며 미친듯이 날뛰였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영웅적으로 싸움으로써 조국강토를 영예롭게 수호하고 영웅조선의 기상을 온 누리에 떨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으로 지켜주신 우리 조국을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빛내여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계시는 한 그 어떤 대적도 단숨에 쳐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이고 의지이다.

남조선괴뢰들이 미국과 함께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포사격도발까지 일삼으며 북침핵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하고있지만 그에 놀라거나 물러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미제의 식민지주구이며 전쟁하수인인 괴뢰패당이 북침의 불뭉치를 휘두르며 미쳐날뛸수록 적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고 최후승리를 안아오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결심과 의지는 더욱 억세여지고있다.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전시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서 준전시상태에로 넘어갈데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은 적들의 사소한 도발도 용서치 않고 단호히 징벌하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무비의 담력과 철석의 의지가 담겨져있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보복의지가 반영된것으로 하여 천만군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섬멸적인 반타격을 안기고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남조선괴뢰들이 우리 천만군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보지 않고 계속 심리전도발과 무모한 군사적망동으로 분별없이 날뛴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들자신이 책임지게 될것이다.

만약 적들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함부로 날뛴다면 우리는 적들의 도발거점은 물론 침략의 아성을 송두리채 쓸어버리고야말것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은 우리의 최후통첩이 결코 빈말이 아니였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것이다.

최 철 순

고의적인 무장도발, 파렴치한 침략행위

남조선괴뢰들이 전쟁도발소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있다. 괴뢰호전광들은 우리가 저들을 향해 포탄 한발을 발사하였다는 터무니없는 사건을 날조하면서 8월 20일 오후 전선중서부지역에서 아군민경초소들을 목표로 36발의 포탄을 쏘아대는 극히 엄중한 무장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령토에 함부로 불질을 한 괴뢰군부깡패들의 망동은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로골적인 침해이며 공공연한 전쟁선포행위로서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파렴치한 침략책동을 서슴없이 감행한 괴뢰역적패당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분별없이 날뛰는 호전광무리를 백배, 천배로 가차없이 징벌할 멸적의 의지를 벼리고있다.

괴뢰들의 이번 포사격도발은 쌍방사이의 현 군사적긴장상태를 고의적으로 격화시켜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계획적인 책동이다.

최근 조선반도정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첨예하다. 남조선괴뢰들은 지난 8월 4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의문의 《지뢰폭발》사건을 무작정 우리와 련결시키면서 그것을 구실로 전 전선에 걸쳐 반공화국심리모략방송을 개시하였다. 한편 악질적인 보수반동단체들을 내몰아 우리측 지역을 향해 삐라살포작전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더우기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괴뢰들이 미제침략군과 함께 방대한 침략무력을 내몰아 북침핵시험전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요란하게 감행하면서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를 조성하고있는것이다.

다치면 터질듯이 팽팽한 이런 정세하에서 감행된 괴뢰들의 포사격도발이 얼마나 위험천만한것인가 하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괴뢰군부호전광들의 이번 포사격도발이야말로 이미 북침핵전쟁을 작정한자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무분별한 모험이다.

전쟁도발에 나서는자들에게는 언제나 저들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이 필요한 법이다.

《지뢰폭발》사건이라는것도 그러하지만 괴뢰들이 또다시 들고나온 《북포탄발사》사건도 북침을 위해 서둘러 꾸며낸 어설프기 짝이 없는 모략날조극이다. 괴뢰패당이 어제는 로케트탄이 날아왔다, 고사포탄이 날아왔다 하고 오락가락하다가 오늘은 발사된것이 직사포탄이라고 말을 바꾼 사실, 포탄의 발사원점과 락탄지점조차 확정하지 못하고있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준다. 남조선의 현지주민들도 북에서 포탄이 날아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남쪽에서 군사훈련을 하면서 쏜 포탄인줄 알았다고 증언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북포탄발사》사건이라는것이 《지뢰폭발》사건과 함께 우리에게 《도발》의 감투를 씌우면서 그에 대응한다는 명목밑에 고의적인 무장도발로 북침핵전쟁의 뢰관을 기어코 터치기 위한 무모한 자작극이라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지뢰폭발》사건이 새 전쟁도발극의 제1막이라면 《북포탄발사》사건은 그의 제2막, 최절정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동족에 대한 모해와 북남대결, 북침전쟁도발을 노린 괴뢰역적패당의 반공화국모략소동을 수없이 보아왔다. 하지만 남조선에서 전쟁발발의 전주곡인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이 대대적으로 감행되고 북침핵시험전쟁까지 벌어지는 초긴장상태에서 감행된 무장도발사건은 처음이다. 괴뢰들은 미국과 함께 방대한 무력을 투입하여 벌리고있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금기야 북침을 위한 실전으로 전환시키려 하고있다. 《북포탄발사》사건이야말로 남조선괴뢰들이 미국과 야합하여 북침핵전쟁각본을 기어코 실행할 흉악한 계책밑에 단행한 사상 최악의 군사적도발이다. 사태는 우리가 도저히 수수방관할수 없는 극단의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의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통일을 바라지만 남조선괴뢰들이 한사코 전쟁의 길을 택하는 이상 그에 주저없이 맞받아나갈것이다.

괴뢰국방부가 48시간안으로 《대북심리전》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심리전수단들을 전면철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군사적행동으로 넘어간다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최후통첩은 북침전쟁의 불뭉치를 휘두르며 리성을 잃고 헤덤비는 역적무리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경고이다.

남조선괴뢰들은 격노한 우리의 최후통첩을 무겁게 대하고 심사숙고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만일 괴뢰들이 우리의 최후통첩마저 무시하고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을 비롯한 군사적도발을 계속 확대한다면 우리의 경고는 즉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될것이다.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괴뢰역적패당이 져야 한다.

전 종 호

전쟁미치광이들의 구차스러운 변명

괴뢰들이 우리가 북침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거듭 요구한데 대해 터무니없는 궤변을 늘어놓고있다. 며칠전 괴뢰통일부 대변인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에 대해 《방어적이고 년례적이며 정례적인 훈련》이라고 수작질하면서 저들의 도발적인 북침불장난소동을 또다시 정당화해나섰다.

그 무슨 《방어적》이니, 《년례적》이니 하는것은 미국과 괴뢰들이 북침합동군사연습을 합리화하기 위해 늘어놓고있는 판에 박힌 수작이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성격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한마디로 말하여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그 규모는 물론 성격과 내용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조금도 의심할바 없는 북침핵전쟁연습이다.

미국과 괴뢰들은 해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면서 그것을 남조선 미국합동무력의 북침전쟁수행능력을 총점검, 강화하고 괴뢰행정기관과 민간의 전쟁동원태세를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삼아왔다. 괴뢰들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처음으로 벌리던 시기에 벌써 《전쟁을 이끌어나갈 준비가 되여있다는것을 증명》했다고 패재를 올린 사실은 이 불장난소동의 침략적성격을 그대로 립증해주고있다.

내외호전광들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벌릴 때마다 그 무슨 《급변사태》에 대처한다고 떠들면서 감히 우리 수뇌부를 노린 특수전훈련을 벌리겠는가 하면 《북의 핵, 미싸일제거》를 위한 훈련까지 감행하였다. 심지어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이 《평양점령》과 핵선제타격을 노린 극히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이라는데 대해 숨기지 않으면서 그 무슨 《점령지역에 대한 통치》를 위한 《안정화 및 민정이양》훈련까지 광고하며 전쟁열을 고취하여왔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남조선에서 현 괴뢰정권이 등장한 이후 더욱 강화되였다. 괴뢰들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의 간판밑에 《서북도서종합방어훈련》, 대테로종합훈련, 대침투종합훈련 등 각종 명목의 훈련들을 미친듯이 벌려놓으면서 북침작전능력강화를 위해 기승을 부리였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북침핵선제공격각본인 《맞춤형억제전략》을 이 전쟁연습에 적용하면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도발하려고 분별없이 날뛰였다.

올해에도 다를바 없다. 지금 남조선의 전역에서는 북침전쟁열에 들떠 돌아치는 미제침략군과 괴뢰군부대들이 산과 들을 누비고있으며 하늘과 바다에는 수많은 함선과 비행기들이 공격작전연습을 벌리며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은 그 무슨 《총력전훈련》이니 뭐니 하며 수많은 민간인들까지 이 전쟁연습마당에 끌어내여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을 불어넣고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괴뢰군부호전광들이 최근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벌어진 《지뢰폭발》사건이라는것을 우리와 련결시키고 이어 《북포탄발사》사건을 조작하여 그것을 구실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의 도수를 높이고있는 사실이다. 괴뢰들은 지금 《북이 또 다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그 무슨 《강력대응》과 《혹독한 대가》에 대해 떠들어대고있다. 얼마전 괴뢰국방부 대변인이라는자는 《강력한 대응》이니, 《조건반사식대응》이니 하고 줴치며 전쟁광기를 부리였다.

외세의 방대한 침략무력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우리를 선제타격하기 위한 도발적인 침략전쟁연습에 미쳐날뛰고있는자들이 저들의 불장난소동에 《방어》의 간판을 붙이는것이야말로 파렴치성의 극치이다.

괴뢰호전광들이 제아무리 오그랑수를 부리여도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북침핵전쟁도발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저들의 흉악한 몰골은 결코 가리울수 없다.

본사기자 리 성 호

무섭게 치솟는 천만군민의 보복열기

최후결전의 시각은 드디여 왔다

지금 우리 온 대학이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멸적의 의지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어디를 가나 괴뢰역적패당을 죽탕쳐버리고 최후결판을 내자는 분노의 함성이 터져나오고있다.

괴뢰호전광들이 우리가 남쪽으로 포탄을 발사하였다는 있지도 않는 사실까지 꾸며내여 아군민경초소들에 36발의 포탄을 발사하였다니 이것을 과연 참을수 있는가. 어제는 《지뢰폭발》사건을 구실로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을 재개하여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 오늘은 또 감히 우리의 신성한 령토에 수십발의 포탄까지 쏘아대는 괴뢰군부불한당들이야말로 리성잃은 전쟁미치광이들이 분명하다.

미친개는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 괴뢰들에게 군사적도발의 대가가 얼마나 쓰라리고 뼈저린것인지 똑똑히 알게 해주어야 한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보도는 남조선괴뢰들의 그 어떤 군사적도발행위도 절대로 용납치 않으려는 우리 천만군민의 원칙적인 립장과 의지를 대변한것이다. 북남관계와 민족의 운명은 전혀 안중에도 없이 북침전쟁도발에만 미쳐날뛰는 박근혜역적패당과는 말로써가 아니라 오직 총대로 결판을 내야 한다.

남조선괴뢰들과 최후결판을 낼 시각은 드디여 왔다.

만단의 준비를 갖춘 우리 대학안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은 한손에는 총을, 다른 손에는 펜을 억세게 틀어쥐고 불구대천의 원쑤이며 민족반역의 무리인 괴뢰역적패당을 씨도 없이 쓸어버릴 가슴후련한 복수전을 기다리고있다.

평양콤퓨터기술대학
교원 리 혜 순

함부로 날뛰지 말라

지금 우리모두는 조성된 위험천만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달하신 명령을 심장에 새겨안고 원쑤격멸의 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괴뢰들이 북침핵전쟁의 불집을 터치려고 최후발악을 하고있는것이 틀림없다. 조선반도의 엄혹한 현실은 과연 누가 평화를 바라고 누가 침략과 전쟁도발에 미쳐날뛰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격전전야의 긴장한 한초한초가 흘러가고있는 준엄한 이 시각 우리들의 가슴마다에서는 존엄높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감히 삼켜보려고 아가리를 벌리는 가증스러운 악마들을 당장이라도 불태워버릴 증오가 이글거리고있다.

우리 기업소안의 전체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지금껏 멸적의 의지로 벼리고벼려온 무쇠주먹으로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을 모조리 죽탕쳐버리겠다.

괴뢰호전광들은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미제와 그 주구들이 끝끝내 이 땅에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다면 도발자들은 제가 지른 불에 타죽고야 만다는것을 우리 천만군민은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줄것이다.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직장장 조 동 철

최후결전에 한몸 바치리

얼마전 미제침략자들과 야합하여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의 총포성을 요란히 터친 괴뢰패당이 이번에 우리의 신성한 령토를 향해 수십발의 포탄까지 쏘아댄것은 온 나라 천만군민의 복수심을 무섭게 폭발시키고있다.

이 땅이 어떤 땅이고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이기에 감히 선불질을 한단 말인가.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사회주의 내 조국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자들은 추호도 용서치 않고 지구상 그 어디에 있건 가차없이 징벌하려는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그런데 먼곳도 아닌 바로 우리의 코앞에 도사리고있는 남조선괴뢰들이 우리 공화국을 감히 넘보며 무모하게 포탄을 쏘아댔으니 우리가 이런 가증스러운 침략자들을 과연 그대로 둘수 있단 말인가.

애초에 백두산혁명강군의 상대로도 되지 않는 미국의 식민지주구들따위가 그것도 상전이 쓰다버린 파철같은것을 들고 우리를 어째보겠다고 허세를 부리니 정말 가소롭기 그지없다. 전쟁현훈증에 걸려 미친듯이 헤덤비는 괴뢰군부호전광들에게 진짜불맛이 어떤것인지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길봉애국인도블로크공장
지배인 원 철 진

원쑤의 머리우에 쇠물을 들붓는 심정으로

《미친개의 사등뼈를 강철몽둥이로 꺾어버리자.》, 《펄펄 끓는 용광로쇠물을 괴뢰군부깡패들에게 들씌우자.》, 이것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보도에 접하고 증오로 끓어번지는 우리 금속공업성안의 모든 일군들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괴뢰군부나부랭이들은 분명 우물안에 처박혀 하늘을 동전잎만한것으로 생각하는 청개구리보다도 못한 미물들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감히 우리의 신성한 강토에 무모하게 포탄을 쏘아댈수 있는가.

우리 공화국은 자주의 성새이고 인민의 참된 삶의 보금자리이다. 그래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귀중한 조국이라고 한목소리로 웨치는것이다.

그런데 미제의 전쟁대포밥에 불파한 괴뢰들따위가 부나비의 운명을 자청하여 서툰 불질을 해댔으니 어찌 참을수 있는가. 날벼락 맞을짓을 함부로 해대며 미친듯이 헤덤비는 괴뢰군부깡패들을 사정보지 말고 가차없이 짓뭉개버려야 한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괴뢰들이 재개한 심리전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심리전수단들을 전면철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군사적행동으로 넘어간다는 최후통첩을 보낸것은 천만번 정당한 결단이다.

우리 금속공업성안의 전체 일군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피끓는 심장으로 접수하고 전시생산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새로운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금 속 공 업 성
국장 신 창 건

우리 나라에 조성된 위험천만한 정세에 대하여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들에게 통보

【평양 8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 나라에 조성된 위험천만한 정세와 관련한 긴급통보모임이 2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있었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들, 대사관성원들과 외신기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겸 정찰총국장 김영철록군대장이 최근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끊임없는 반공화국정치군사적도발로 하여 우리 나라의 정세가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는데 대해서와 적들의 파렴치한 모략소동의 진상에 대해 통보하였다.

그는 8월에 들어와 미국의 부추김밑에 괴뢰들의 반공화국도발책동이 전례없이 우심해지고있는 가운데 20일 오후 남조선괴뢰군부호전광들이 그 무슨 《북포탄발사》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해내고 그를 구실로 아군민경초소들에 36발의 포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한데 대해 폭로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북포탄발사》사건이야말로 터무니없는 모략이고 날조이다.

괴뢰들은 아직까지도 우리측 지역의 《포발사》원점도, 자기측 지역에서의 《탄착》지점도 확정하지 못하고있다.

지금 괴뢰군당국은 대포병탐지레이다에 허상이 잡혔거나 장비가 오동작했는지에 대해 과학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런가하면 포탄이 어느 한 야산에 떨어졌다는 추상적인 소리만 내놓을뿐이다.

그 산중턱주변에 있는 주민들자체도 포성같은것은 전혀 듣지 못했으며 오직 남조선괴뢰들이 울리는 포소리만 들었다고 말하고있다고 한다.

괴뢰들의 주장대로 우리가 확성기를 파괴하기 위해 반항공무기인 고사포로 포탄을 발사했다는것은 삼척동자도 믿기 어려운 일이다.

확성기를 파괴하기 위해 소총을 쏘아댔다는것은 더욱 말이 안된다.

로케트탄의 경우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이 모든것은 괴뢰들의 이번 무장도발이 완전한 허구에 기초하여 고의적으로 일으킨것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사태의 엄중성은 괴뢰들의 반공화국도발책동이 8월에 들어와 계획적으로 더욱 빈번히 벌어지고있다는데 있다.

괴뢰들이 지난 8월 4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의문의 《지뢰폭발》사건을 등대고 전 전선에서 대북심리전방송을 재개하고 악질반동단체들을 내몰아 대북삐라살포작전에 더욱 열을 올리는것은 사실상의 침략전쟁행위에 진입한것이라고 말해야 옳을것이다.

문제는 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기도 전에 청와대와 괴뢰국방부, 합동참모본부가 우리를 걸고들고있는데 있다.

남조선괴뢰들이 《지뢰폭발》사건의 《북도발》을 꾸며낸것은 현 북남관계의 긴장국면이 조성된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며 반공화국삐라살포와 같은 동족대결을 합리화할수 있는 구실을 마련해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실적으로 괴뢰들은 이번 사건을 《북도발》로 매도한 즉시 대북심리전방송을 재개하였다.

전선지역에서의 대북심리전방송재개는 북남군사적합의에 대한 로골적인 파기행위이고 우리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도발이며 북남관계를 최악의 사태로 몰아가는 중대사건이다.

대북심리전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를 겨냥한 가장 로골적인 침략전쟁행위이다.

다시말하여 우리 인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 군대가 목숨으로 지켜가는 우리 사상과 제도를 허물고 우리 정권과 삶의 모든 능력을 찬탈하기 위한 악랄한 정치군사적도발이다.

우리의 면전에서 무모하게 벌어지는 남조선괴뢰들의 이러한 정치군사적도발은 지금 나라의 정세를 위기일발의 폭발국면에로 몰아가고있다.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20일 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21일 17시부터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불의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이 하달되였다.

그는 적들의 무모한 도발광기는 기필코 값비싼 징벌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의로운 군사적대응조치는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게 될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무모하게 번져지는 도발자들의 끊임없는 대결광란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것이다.

세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침략자, 도발자들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어떻게 짓부셔버리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는 심리전방송의 중지를 요구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위험한 군사적충돌을 가져올 심리전방송의 중지를 요구하여 11일 괴뢰국방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는 국방부가 지난 4일에 발생한 《지뢰폭발》사고를 《북의 소행》으로 몰아가면서 《대북심리전》방송을 재개하고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작전을 강화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특히 이번 사건을 구실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에 미국의 《B-2A》, 《F-22A랩터》 등 첨단폭격기와 전투기들을 끌어들이려 하고있다고 단체는 규탄하였다.

이것은 남과 북사이에 군사적충돌을 불러올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처사라고 단체는 단죄하였다.

단체는 군당국이 이번 《지뢰폭발》사건이 《북의 소행》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단체는 군사적대결과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는 심리전방송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과 추종세력들은 상대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미국이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벌려놓음으로써 조선반도정세를 예측할수 없는 엄중한 국면에로 몰아가고있다. 상전의 부추김을 받은 남조선괴뢰군부깡패무리들은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는 격으로 《북포탄발사》사건을 조작해내고 그것을 구실로 신성한 우리 령토를 향하여 수십발의 포탄을 발사하는 무모한 군사적망동을 저질렀다. 조성된 위험천만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전시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할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이 하달되였다. 이것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끝끝내 도발을 걸어온다면 비참한 말로를 면치 못한다는 엄숙한 경고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 조선전쟁에 이어 수십년간의 조미대결사를 통해 미국이 상대를 잘못 보고 덤벼들면 어떤 비참한 결과가 차례지게 되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무모한 전쟁불장난소동으로 우리를 어째보려고 날뛰고있다. 최근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에서의 저들의 패전을 《승전》으로 바꾸어보려고 헛된 시도를 한것을 놓고서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미국이 또다시 《잊혀진 전쟁》이요 뭐요 하면서 부린 추태는 국제사회의 조소를 자아냈다.

3년간의 조선전쟁이 끝난 후 국제사회는 상반되는 광경을 목격하였다. 한쪽에서는 승리한 고지마다에서 공화국기가 휘날리고 우리 인민군대의 만세의 함성이 산발을 뒤흔들었으며 전승의 축포가 온 천지를 진감하였다. 전승열병식장에서 근위부대들이 지축을 울리며 행진해나갔다. 한편 대양건너에서는 무덤장군들이 오랜 침략의 력사와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이 어떻게 되여 자그마한 나라에 흰기를 들고 항복서에 서명하게 되였는지 몰라 골머리를 싸쥔채 고용병들의 주검앞에서 쓰디쓴 고배만을 마셨다. 승자와 패자를 보여주는 이런 극적장면들은 다른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무리 세월이 흐른대도 승자와 패자는 뒤바뀔수 없다.

7.27은 세계를 제패하고 노예화하려고 덮어들었던 미제국주의자들을 멸망의 내리막길에 몰아넣은 승리자들인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찬 명절이다. 세계는 침략과 전쟁의 피수에게 첫 참패를 안긴 영웅조선의 빛나는 력사의 기적을 오늘도 생생히 추억하고있다.

지난 조선전쟁은 미국에 있어서 처음부터 상대를 잘못 고른 전쟁이였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비대할대로 비대해진 미국은 조선전쟁을 앞두고 우리 나라를 상대가 안되는 적으로 보았다. 창건된지 2년도 안되는 청소한 조선 대 피비린 침략력사를 자랑하는 미국파의 전쟁은 말그대로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였다.

인류전쟁사를 놓고보아도 적아간의 력량대비가 이렇게 엄청난 례는 보기 드물다. 아침은 해주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고 전쟁도발자들이 호언장담한것은 방대한 병력이면 만사가 다 해결될것이라는 타산에서였다. 전쟁방화자들은 불뭉치를 휘두르면서 저들이 그 불길속에서 타죽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 침략자들은 심히 오산하였다.

전쟁의 포성이 울리기 바쁘게 오만한 침략자들의 머리우에는 멸망을 선고하는 뢰성이 무섭게 울렸다.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잘못 보았소!

백두산장군의 이 불호령은 상대를 얕보고 달려드는 침략의 무리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는 준엄한 선언이였다.

조선전쟁을 일으킬 때 오만한 적들의 눈에는 항일의 투쟁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혁명무력과 조선인민의 정신력이 보이지 않았다. 적들은 상대가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각오를 품고 눈보라천리, 혈전만리를 헤치고 끝끝내 강도 일제를 쳐부신 불굴의 정신력강자들이라는것을 알지 못했으며 알수도 없었다.

저들이 조선전선에 나타나기만 해도 형세가 달라질것이라고 허세를 부리던 미제침략군 우두머리들의 타산은 완전히 빗나갔다.

영웅적 우리 인민군전사들은 승냥이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과 같이 상대를 우습게 보고 덤비는 적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었다. 《스미스특공대》의 오산게선에서의 괴멸이 그 시작이였다.

《강대성》의 신화를 자랑하며 방대한 전쟁장비와 추종국가군대들까지 총동원하여 발악적인 공세를 거듭했지만 침략의 무리들은 전쟁전기간 심대한 정치군사적, 정신도덕적참패를 면할수 없었다. 수적, 기술적우세를 자랑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대결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였다. 3년간에 걸치는 가렬한 판가리싸움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정신력이 강하면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군대도 능히 타승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경적필패라는 군사격언이 있다. 적을 가볍게 보면 반드시 패한다는것은 력사가 새겨주는 교훈이다.

미제가 상대를 잘못 보고 달려들었다가 패하는것은 지난 세기 50년대뿐이 아니라 오늘까지의 조미대결사의 전통이다.

지난 세기 90년대 전반기 미국은 이전 쏘련과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지자 이것을 기화로 《북조선조기붕괴설》을 내돌리면서 반공화국압살정책에 미쳐날뛰였다. 사회주의보루로 굳건히 솟아있는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적들의 《핵의혹》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졌다. 미제는 우리의 일반군사대상물에 대한 사찰을 강박하던 끝에 특별사찰까지 강요하여나섰다. 일시 중지되였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재개를 선포하였다. 120만의 제국주의련합군과 태평양에 있는 방대한 핵무력을 조선반도주변에 긴급출동시키고 대조선포위환을 겹겹으로 조이고는 단숨에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전면핵전쟁발발의 기회를 노리고있었다.

세계의 이목이 조선으로 쏠리고있을 때 선군령장의 서리발같은 뢰성이 울렸다.

백두령장의 담력과 배짱으로 온 나라에 준전시상태가 선포되고 련이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공화국정부성명이 발표되였다.

상대를 잘못 본 적대세력들은 혼비백산하였다. 그러나 결코 순순히 무릎을 꿇은것은 아니였다. 콤퓨터모의전쟁도 해보았다.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였다. 만일 한사코 조선을 반대하는 전쟁을 일으킨다면 차례질것이란 참패뿐이라는것이 미국방성콤퓨터의 대답이였다.

제1차 조미핵대결전은 미국이 조미기본합의문에 서명하고 대통령담보서한까지 우리에게 보내오는것으로 막을 내렸다.

미국은 새 세기에 들어와 첨예하게 벌어진 조미대결전에서도 보기좋게 패하였다. 호전적인 부쉬정권은 세계《유일초대국》이라는 망상과 세계제패야망에 현혹되여 핵몽둥이를 휘두르며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보려고 기승을 부리였다.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으로 ,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정하고 선불질을 하려고 서둘렀다. 우리 공화국은 나라의 자주권이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는 조건에서 핵에는 핵으로 대결하는외에 다른 길이 없었다. 결국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려온 미국이 우리 나라를 강대한 핵보유국으로 떠밀었다.

미국에 어리석은자는 스스로 화를 부른다는 속담이 있다.

미국은 상대를 잘못 보고 덤비기때문에 패배는 불가피하다. 오바마행정부는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걸고 날강도적인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를 조작하여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위성발사권리까지 비법화하는 포악무도한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핵전쟁연습을 벌려놓고 그것이 그 누구의 체제《붕괴》를 목적으로 한것이라는것을 거리낌없이 공개하였다.

《핵무기없는 세계》를 제창하며 국제사회를 우롱하고있는 미국은 우리 나라를 무장해제시켜 손쉽게 먹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다.

이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이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더욱 음흉하고 교활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이제라도 반제반미대결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결사의 의지를 똑똑히 보아야 한다. 미국이 우리와 힘으로 맞서려 한다면 우리는 구태여 그것을 피하지 않을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상용무기에 의한 전쟁이든, 핵전쟁이든, 싸이버전이든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전쟁방식에도 다 상대해줄 그런 힘이 있다.

만일 미제가 또다시 이 땅에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종국적패전사를 써주자는것이 천만군민의 멸적의 의지이다.

미국은 저들이 결코 강적이 아니라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얼마전 신임 태평양지역 미군총사령관이라는자는 《북조선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가장 큰 위협》이라느니, 《북조선때문에 때없이 잠자리에서 일어난다.》느니 뭐니 하고 아부재기를 쳤다. 이것은 우리의 강위력한 미싸일들이 태평양건너 미국의 《자유의 녀신상》이나 펜타곤, 백악관을 향해 언제 날아들지 알수 없기때문에 하는 소리일것이다.

20세기초 미국대통령 루즈벨트는 조선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방어를 위해서 손가락 하나 쳐들지 못하는 쇠약한 민족이라고 모독하였는데 그가 오늘의 조미판계를 목격한다면 어떤 아우성을 치겠는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일본시사론평가 시이나 가즈오는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지난날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무분별한 핵공갈과 침략위협에 어느 하루도 마음편히 살지 못했던 조선이 오늘은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까지도 핵악몽에 질겁하여 감히 선불질을 못하고 쩔쩔매게 하고있는것은 강력한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소유했기때문이다. 핵보유이전의 조선에 대해서도 감히 군사적공격을 하지 못했던 미국이 당당한 핵보유국이 된 조선에 싸움을 건다는것은 자멸행위나 다를바 없다. 더우기 조선의 최고령도자가 선대수령들의 령활한 군사지략과 담대한 기질을 그대로 계승하고 반미전면대결전을 이끌고있는 조건에서 미국은 그 어떤 군사적모험도 자기 나라를 종국적멸망에로 몰아갈수 있다는것을 각오해야 할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총고이다.

미국은 상대가 어떤 정신력강자들인가를 똑바로 보고 일찌감치 승산도 없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려야 하며 무분별한 전쟁연습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리 현 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보도를

여러 나라에서 보도

전선중서부지역에서 남조선괴뢰군부호전광들의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가 또다시 발생한것과 관련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보도를 21일 여러 나라 통신, 방송, 신문이 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남조선과의 경계선지역에서 엄중한 사태가 조성된것과 관련하여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한다고 보도하였다고 하면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보도를 전하였다.

통신은 긴급보도가 《지금 우리는 남조선괴뢰국방부가 48시간안으로 대북심리전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심리전수단들을 전면철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군사적행동으로 넘어간다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최후통첩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고 밝힌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 나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도 같은 내용으로 보도하였다.

미국의 AP통신은 남조선이 8월 20일 북측에 수십발의 포탄을 발사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북측은 어떠한 사격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엄중한 도발에 보복하겠다고 경고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20일 밤 긴급보도를 통해 남측이 있지도 않는 구실을 내대고 아군민경초소들을 목표로 36발의 포탄을 발사하는 분별없는 망동을 부리였다고 주장하였다.

보도는 포탄들이 아군민경초소들의 부근에 떨어졌지만 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우리의 신성한 령토, 조국보위초소에 대한 무지막지한 포사격은 추호도 용납할수 없는 엄중한 군사적도발이다.》라고 보도는 강조하였다.

미국의 VOA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도꾜신붕》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보도를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괴뢰군부호전광들의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것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성명 발표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21일 《남조선괴뢰군부호전광들의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남조선괴뢰군부호전광들이 공화국의 면전에서 정치군사적도발책동을 무모하게 감행하면서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괴뢰군부호전광들은 조선인민군이 남측으로 포탄 1발을 발사하였다는 있지도 않는 구실을 내대고 조선인민군 민경초소들을 목표로 36발의 포탄을 발사하는 무분별한 군사적망동을 저질렀다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성명은 어제는 의문의 《지뢰폭발》사건을 구실로 전 전선에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심리전방송을 재개하고 오늘은 명백한 근거도 없이 공화국지역에 숱한 포탄을 쏘아대고있는것이 다름아닌 전쟁도발광기에 분별을 잃은 괴뢰군부호전광들이라고 밝혔다.

사태의 엄중성은 호전광들이 남조선 전지역에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은 속에서 이러한 군사적도발을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는데 있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성된 위험천만한 정세에 대처하여 긴급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21일 17시부터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불의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지금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에 전폭적으로 호응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남조선괴뢰군부호전광들은 격노한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 장병들의 보복열기를 똑바로 알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것이다.

더러운 모략과 위험한 군사적도발로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넣은 박근혜역도와 괴뢰군부호전광들을 준렬히 단죄한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성명 발표

【도꾜 8월 21일 조선통신발 조선중앙통신】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는 남조선괴뢰군부깡패들의 무모한 정치군사적도발을 규탄하여 21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정치군사적도발로 인하여 일촉즉발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엄혹한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은 박근혜역도와 남조선괴뢰군부호전광들이라고 락인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난 8월 4일 전선서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의문의 《지뢰폭발》사건은 공화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20일 오후 있지도 않는 《북포탄발사》사건을 날조한것도 남조선괴뢰들이다.

남조선괴뢰들이 새빨간 거짓을 날조하여 반공화국심리전을 미친듯이 벌리면서 공화국의 령토를 향하여 수십발의 포탄을 란사한것은 참으로 천인공노할 망동이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미제의 주도하에 핵전쟁도발을 위한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 한창 벌어지고있는 때에 박근혜역도와 괴뢰군부호전광들이 대대적인 심리전과 무모한 군사적망동을 감행한것이다.

상대방을 자극하는 도수넘은 심리전을 벌리면서 대방의 령토에 무분별한 포탄사격을 가한다면 그것이 곧 전쟁이라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무분별한 전쟁불장난으로 조선반도정세를 위기일발의 폭발국면에로 몰아넣은 박근혜역도와 남조선괴뢰군부호전광들에 대한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치솟는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는 하늘을 찌르고있다.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공화국은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올해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기 위하여 획기적인 제안과 중대조치들을 련이어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박근혜역도는 북침핵전쟁연습과 반공화국모략소동을 악랄하게 감행함으로써 북남관계를 고의적으로 악화시켜 8.15를 민족단합의 중대한 계기로 만들려는 온 겨레의 지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대죄악을 저질렀을뿐아니라 이제 와서는 있지도 않는 《북포탄발사》사건을 조작하여 조선반도를 전장으로 만들려고 미친듯이 날뛰고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과연 누가 조선반도의 참된 평화와 민족의 통일번영을 진정으로 바라고있으며 누가 외세를 등에 업고 나라의 통일을 한사코 가로막으면서 민족의 머리우에 전쟁참화를 들씌우려 하고있는가를 똑똑히 보고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전체 재일동포들의 치떨리는 분개심을 모아 더러운 모략과 위험한 군사적도발로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넣은 박근혜역도와 괴뢰군부호전광들을 준렬히 단죄하며 공화국을 반대하는 심리전방송을 당장 중지하고 심리전수단들을 전면철거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민족의 존엄과 리익은 안중에도 없이 침략적인 외세에 아부굴종하며 우리 민족을 동족상쟁의 비극에로 몰아가려는 박근혜역도와 괴뢰군부호전광들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절대로 면치 못할것이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공화국의 주체적해외교포조직인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조선민족의 슬기와 존엄을 위하여, 참다운 어머니조국의 륭성과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와 함께 끝까지 싸울것이다.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이란에서

이란외무상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가 최근 미국의 그릇된 대외정책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력사를 돌이켜보면 중동지역에서 불안정이 초래되고 극단주의와 테로가 확대되게 된 원인이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추종세력들의 그릇된 정책들과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잘못된 조치들에 있다고 까밝혔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역과 세계에 전쟁과 파괴, 극단주의밖에는 아무것도 가져다준것이 없다고 하면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도 현실을 외면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수리아에서

수리아공보상이 16일 이슬람교방송 및 TV동맹 총회에서 연설하면서 테로와의 투쟁에서 물러서지 않을 정부의 립장을 밝혔다.

수리아가 테로와의 전쟁을 벌리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그는 지역에서 감행되는 테로행위들은 이스라엘침략자들의 계획에 따른것이라고 폭로하였다. 그는 비록 지금은 시련을 겪고있지만 수리아인민은 절대로 주저앉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어떤 세력도 수리아기발을 내리울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짐바브웨에서

짐바브웨외무상 씸바라쉐 씸바넨두쿠 몸벵게귀가 14일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회의에서 연설하면서 기구의 자립을 주장하였다.

그는 공동체가 경제적자립을 이룩하지 못하고 원조에만 계속 의존한다면 앞으로 성원국들의 미래를 담보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공동체성원국들의 내부자원을 동원하여 경제분야에서 자립할수 있는 구조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팔레스티나에서

팔레스티나외무성이 16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살인만행을 준렬히 단죄하였다.

성명은 최근 이스라엘군이 배임과 같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서 죄없는 팔레스티나청년들을 마구 살해하고있는데 대해 지적하면서 이것은 이스라엘당국의 의도적인 지시에 따른것이라고 까밝혔다.

팔레스티나정부는 이스라엘당국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할것이라고 밝히고 성명은 국제공동체가 팔레스티나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것을 호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그리스에서 당국의 부당한 정책을 반대하여 시위

베에르 은쿠룬지자 부룬디대통령으로 취임

부룬디에서 베에르 은쿠룬지자가 2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취임연설에서 나라의 평화와 안정, 독립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지난 7월에 있은 대통령선거에서 과반수의 지지표를 받아 대통령으로 재선되였다.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강경립장

○ 우간다대통령 요웨리 카구타 무쎄베니가 10일 케니아대통령 우후루 케니아타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아프리카나라들에 대한 미국집권자의 내정간섭적인 망발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최근 오바마가 아프리카나라들에서 대통령선거가 민주주의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있다느니 뭐니 하고 헐뜯은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부당한 간섭으로 락인하였다.

그는 대륙에서의 대통령선거는 매개 나라들의 헌법에 준하여 제기일내에 민주주의적으로 진행되고있다고 하면서 미국과 서방은 아프리카인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 베네수엘라외무상 델씨 로드리게스 고메스가 13일 글을 발표하여 미국의 내정간섭행위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12일 미국무장관이 베네수엘라의 정치정세가 매우 의심스럽다느니, 국회선거과정을 감시할 사찰인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떠벌인것과 관련하여 글은 이를 용납할수 없는 행위로 락인하였다.

글은 미국의 처사가 국제법에 저촉된다고 강조하고 자기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을 걷어치울것을 요구하였다.

○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 해군사령관이 3일 한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적들의 위협책동에 단호히 대처해나갈 립장을 천명하였다.

오늘날 이란무장력은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추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만약 미국이 이란을 반대하는 사소한 군사적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예측할수 없는 보복타격을 받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파키스탄외무성이 7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군의 무인기공습만행을 단죄하였다.

6일 미군이 북부와지리스탄지역 상공에 무인기를 들이밀어 또다시 무고한 파키스탄인들을 야수적으로 살해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를 나라의 자주권과 령토완정,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유린행위로 락인하였다.

성명은 무인기공습을 당장 중지할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인류를 우롱하는 핵범죄자의 위선

얼마전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미국의 원자탄투하 70년에 즈음한 의식이 진행되였다.

여기에 대표로 참가한 미국무성의 한 인물이 《원자탄피해생존자들이 핵무기의 후과를 세계가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계속 열변을 토하는것을 보고 감동되였다.》느니, 《그들의 이야기가 후세에 전해져야 하며 세계는 핵무기전파를 막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느니 하고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인류에게 무서운 핵재난을 들씌운 당사국의 대표라는 인물이 한 말치고는 너무도 뻔뻔스럽다.

1945년 8월 6일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함으로써 인류는 력사상 처음으로 핵무기에 의한 몸서리치는 참변을 체험하였다.

미국의 원자탄투하로 온 도시가 재가루로 변하고 조선사람들을 포함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의 정객이 자국의 죄악을 성토하는 마당에서 말재간이나 부린것은 력사의 진실에 대한 외면이고 인류량심에 대한 우롱이다.

인류의 머리우에 핵참화를 몰아온 특대형범죄에 대한 속죄도, 수십년간 핵무기로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며 침략과 전쟁을 일삼아온 죄악의 력사에 대한 반성도 없이 히로시마의 대지를 더더고 선것자체가 철면피의 극치이다.

미국이 인류를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한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없는 특대형범죄이며 세계를 핵위협의 소용돌이속에 몰아넣은 죄악의 첫걸음이였다.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는데서 저들이 주요한 역할을 한것처럼 세계를 기만하여 전후 국제문제처리에서 큰 몫을 차지하며 미국의 강대성을 과시하자는것이 당시 핵범인들이 노린 주요목적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핵광신자들은 지금까지 원자탄투하를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여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짓는데 《기여》한 정당한 행위라느니, 수많은 일본인들과 미군의 목숨을 구원한 최선의 선택이였다느니 뭐니 하며 저들의 범죄행위의 진상을 오도해왔다.

하지만 그것은 핵무기에 의거한 세계제패를 추구하는자들의 파렴치한 궤변이다.

얼마전 로씨야국가회의 의장은 미국이 일본에 원자탄을 투하한데 대한 국제군사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문건대 만약 히틀러체제가 당시 접근이 가능하였던 화학무기의 도움으로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더 파괴하였다면 법적결과는 어떻게 되였을것인가?

인류력사상 한번밖에 없었던 일본에 대한 원자탄투하는 아직까지 국제군사재판의 심의대상으로 되지 않았다. 하지만 반인륜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백번 옳은 말이다.

력사상 가장 큰 죄악의 하나로 뚜렷이 기록된 미국의 핵무기사용은 사죄와 반성에 대해 론하기에 앞서 국제법에 따르는 준엄한 판결을 받아야 할 특대형범죄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미국에 의해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의 참화가 산생된 때로부터 7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미국의 죄상을 문책하는 목소리들이 강경하게 울려나오고 있는것이다. 지어 미국내에서도 그러한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얼마전 미국의 원자탄개발을 위한 《맨하탄계획》에 참가했던 한 인물이 《일본에 대한 원자탄투하는 피해야 하였다고 생각한다.》라고 털어놓았다.

《원자탄사용은 군사적으로 전혀 필요없었다.》, 《원자탄은 전쟁종결과 아무 관계도 없다.》는 고백도 모두 미국의 집권계층속에서 나온 말이다.

미국의 죄악은 단지 70년전에 핵무기를 사용하였다는 과거의 문제로만 볼수 없다.

미국은 유일하게 핵무기를 사용하였으며 세계를 핵군비경쟁의 소용돌이속에 몰아넣고 인류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계속 몰아오고있는 현행범이다.

오늘의 현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있다.

미국은 지금 《핵무기없는 세계》를 운운하면서 마치도 저들이 세계의 비핵화에 주동적이고 핵군축의 본보기인듯이 놀아대고있다. 그러나 뒤돌아앉아서는 핵무기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야망을 더욱 추구하면서 핵무기고를 부단히 현대화하고있다. 은폐된 핵시험을 끊임없이 감행하면서 새로운 핵무기들을 개발, 생산하고있다.

미국이 첫 유도핵폭탄을 개발하고있으며 이미 이와 관련한 시험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이 공개된것도 바로 얼마전의 일이다. 동시에 우리 나라와 같은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의 《핵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핵위협을 동반한 고립압살책동에 광분하고있다.

핵우세로 《유일초대국》의 지위를 부지하며 핵무기를 또다시 사용해서라도 세계를 지배하려는것이 미국의 변함없는 흉심이며 범죄적기도이다.

히로시마의 참상은 결코 먼 옛날의 일이 아니다.

핵전쟁광신자인 미국이 여전히 핵무기를 휘두르는 한 70년전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세계에는 핵전쟁의 위험이 더욱 짙어가고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사용한 미국에는 핵무기를 철폐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최근 미국의 어느 한 대학교수가 한 말이다.

그렇다. 미국은 핵무기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세기를 이어오며 세계를 핵전쟁의 위협속에 몰아넣은 범죄적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본사기자 리 철 혁

ㄱ-51131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